



## 습진과 피부연고제



국 홍 일

체표(體表)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만큼 큰 장기는 인체에 없다. 간이나 심장같은 장기는 단 한순간도 기능을 잃거나 멎으면 생명을 잃게 하는 중요 장기로 생각하고 끔찍히 위하지만, 피부 역시 3분의 1정도만 화상을 입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피부도 숨을 쉬고 내부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체온조절, 외부열의 체내 침투를 막는 단열재(新熱材)구실을 하는 등, 그 기능은 참으로 막중하며 다양하다. 거기다 인체를 예쁘고 매끈하게 감싸주는 역할까지 한다. 피부에 덮이지 않은 인체는 상상만 해도 인간다울 수 없다.

이렇게 귀중한 장기인 만큼 자체방어기능이 강력하지만,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질병으로 표현되는 이들 피부이상 중 가장 흔한 것이 습진이다. 습진은 피부가 인체 제일 바깥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걸리는 숙명적인 병이라 할 수 있다. 피부과 외래환자의 30~40%를 차지하는 습진은 피부를 침범하는 비전염성, 염증성피부염의 통칭이며 원인이 외부적인 것도 있고 인체 내부의 어떤 기전(機轉)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는, 하여간 복잡한 병이다. 어떤 물질에 접촉되어 그 반응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수도 있고 자가면역기전의 이상 혹은 유전적 소인이 많이 관여된다는 아토피성피부염도 습진의 범주에 속한다.

이 질환의 증상은 우선 아주 가렵거나 따갑고 물집(水疱)이 생겨 붓고(腫張), 계속 긁으면 진물(濕潤)이 나다가 딱지가 앉는다.

습진의 종류는 많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접촉성피부염이다. 인체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격리되어서는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많은 물질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데, 피부에 접촉된 어떤 물질이나 기계적 자극이 허용농도 및 시간을 초과했을 때 누구에게나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물일을 하고 파, 마늘, 고춧가루 등 자극성 향신료에 끊임없이

체표(体表)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만큼 큰 장기는 인체에 없다.  
그런 만큼 자체방어기능도 강력하지만,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노출되어야 하는 주부들의 손은 이들 자극에 의해 피부의 방어기능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파괴된 피부를 통해 자극물질에 대한 심한 반응이 나타나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는 습진 양상을 띠게 된다.

또 어린아이들이 차는 기저귀에 대소변의 암모니아(알칼리성물질)가 묻어 그것이 연약한 아기의 피부를 진무르게 하거나 벌건 홍반이 생기는 피부염증이 생기는 것도 습진이다.

물일을 하고 화학적 세제에 접촉되어 생기는 습진은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부들에게 특징적으로 생겨 주부습진이란 병명이 붙었고, 인간이 기저귀를 차야 하는 특징적인 시기에만 생기는 것은 기저귀피부염(Diaper Dermatitis)이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습진은 단순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다. 그러나 같은 원인물질에 접촉되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과민반응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떤 외인성물질 즉 항원(抗原)에 대해 과민성(Allergy)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칠기그릇에 꼭 필요한 옷은 근처에만 가도 '옷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으로 칠을 입히는 직업인이 옷을 만지고 발라도 피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개체마다 틀린 과민성 때문이다.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비단 옷 뿐만이 아니고, 갖가지 화학성분이나 중금속 등 주위에 흔한 물질이 대부분이다. 분자량이 500~1000정도의 단순화합물 모두 인체 피부에 대해 감각물질(感作物質) 또는 항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피부에 접촉되면 피부 내에서 항원과 항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개인차가 있으며 페니실린쇼크와 같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연반응을 보인다.

접촉이나 자극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족적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독특한 피부증상(습진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 피부증상은 특이하여, 생후 3주 또는 3~4개월에 나타나는 형, 6~10살 때 나타나는 소아기형, 13세부터 30세 사이에 나타나는 성인 증상으로 나눈다.

아토피성피부부염이라 불리는 증상이 바로 이 피부염(습진)으로, 유아기형은 작은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 문대거나 긁게되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긴다. 주로 얼굴 중 뺨과 이마, 두피(頭皮)에 잘 생기고 목이나 기저귀를 차는 부위에도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지 않은 부위도 까칠까칠하고

모든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부터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마른 상태가 된다. 이 피부병은 3~4세쯤 되면 호전되나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며 기계적 자극에 의해 자주 재발된다.

유아기 때는 뽕쟁거나 심하게 알지 않은 경우, 국민학교 입학할 나이쯤  
발생하는 소아기형 아토피성피부염도 습진으로 분류된다. 주로 팔다리의  
바깥 쪽으로 작은 구진(丘疹)이 넓게 퍼져 있거나 구부러져 맞닿는 부위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보이고 몹시 가렵다.

13~30세 사이에 발생하는 성인기 아토피성피부염은 피부가 더욱  
매마르고 두꺼워지며 어릴 때는 받지 않던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피부염의  
병상을 보이는 수가 많다.

집축성이건 알레르기성이건 또는 아토피성피부염이든(이들 습진은  
이외에도 지루성피부염, 영양결핍성피부염, 정류성습진 등 많다) 이들의  
치료법은 원인부터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신요법보다 국소요법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 요법도 극히 단순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고농도의  
약제로 금방 효과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지나친  
치료로 자극증상을 유발시키는 일이 흔하다. 약국에서 파는 연고의 설명서를  
읽어보면 피부병변마다 다 해당되는 것이 많고 여러 약제를 혼합하여 그  
가운데 어떤 물질이 효과를 보이면 계속 사용하여 아주 난치성으로 변하는  
예가 허다하다.

습진치료에서 신경을 써야할 것은 처음엔 피부를 보호, 부드럽게 하는  
기초약제를 선택하는 것이며 농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치료  
중에 변화가 없거나 악화될 때는 즉각 약을 바꾸어야 한다.

급성일 때는 피부를 냉각시켜 혈관수축과 염증을 없애고 가려움증을  
덜어주는 약을 쓴다. 그리고 2차 세균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으로 이행된 경우 수분이 전혀 없는 연고, 물 속에 기름을 넣은 천수연고  
(Water in oil) 및 기름 속에 물이 들어 있는 연고 등 기초제를 쓰는 것이  
좋다.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연고는 부신피질호르몬제가 대표적인데, 4~  
5개월동안 계속 사용했을 때 고혈압, 골다공증, 백혈구증가증, 스테로이드성  
당뇨병 등 무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엄격한 관리가  
요망된다. 72

〈필자=국홍일 피부레이저 클리닉 원장〉